

윤리와 사상 과목

[윤리와 사상]

1	③	2	①	3	①	4	③	5	⑤
6	③	7	⑤	8	③	9	⑤	10	①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④
16	②	17	④	18	④	19	②	20	③

01. 가상 대화의 스승은 노자이다.

- ③ 노자는 자연스러운 도에 따라야 하고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난 무지한 삶과 의욕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 ① 노자는 인간의 본성이 순수하고 소박하다고 보았다.
- ④ 노자는 시비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노자는 물질문명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았다.

02.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 ① 플라톤에 의하면, 각 계층이 지혜, 용기, 절제를 갖춰 조화를 이룬 것이 정의로운 국가이듯 정의로운 인간은 영혼에서 세가지 덕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 ② 플라톤은 지혜가 아니라 절제를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는 덕이라고 보았다.
- ③ 실천적 지혜는 상황 맥락에 따라 중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적인 덕이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은 품성적 덕만이 아니라 지적인 덕도 갖추어야 이루어진다.
- 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이성적 능력이 발휘되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03. 갑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 ① 공자는 예를 도덕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또한 마땅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 ② 공자는 예의 실천에서 내재된 덕성과 형식적 절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순자는 예법을 선왕이 제정한 것으로 보았다.
- ④ 순자는 타고난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교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예의 궁극적 목표는 인격 완성과 도덕 사회 실현에 있다.

04.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 ㄱ. 케인스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ㄴ. 하이에크는 경쟁을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 없이 경제 행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 ㄷ.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이에크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 경제를 도입하면 노예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05.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 ⑤ 아퀴나스에 의하면,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이루어진다. 현세의 행복은 완전한 행복을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① 아퀴나스에 의하면, 신의 존재는 경험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으로 논증될 수 있다.
- ②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 서로 다르지만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자연법은 신의 지혜인 영원법에 기초한다.
- ④ 아퀴나스의 자연법 제1원리인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으로 구체화된다.

06. 갑은 사르트르, 을은 듀이이다.

- ③ 듀이는 도덕적 가치도 성장하고 진보한다고 보았다.

- ① 사르트르는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②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④ 듀이는 진리를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 ⑤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윤리 규범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였다.

07. 제시문은 흄의 주장이다.

- ⑤ 흄은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온다고 보았다.
- ① 선악의 판별이 이성에서 아닌 감정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이성이 감정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직접 의욕할 수 없다.
- ④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공감을 통해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

08. 갑은 데카르트, 을은 베이컨이다.

- X: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 등을 통한 경험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 Y: 데카르트는 이성적 추론의 출발점을 찾기 위해 방법적 회의를 강조하였다.
- Z: 베이컨은 개별 경험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는 참된 귀납법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09.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 을은 동도서기 사상가이다.

- ⑤ 동도서기에서는 유교 사상을 지키면서도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위정척사에서는 유교 사상을 고수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①, ③ 위정척사 사상, 동도서기 사상 모두 유교 사상을 지켜가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동도서기 사상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④ 위정척사사상, 동도서기사상 모두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10.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 ㄱ. 벤담, 밀 모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였다.
 - ㄴ. 벤담, 밀 모두 공리의 원리는 개인 행위와 국가 정책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밀만의 입장이다.
 - ㄹ. 벤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11. 갑은 맹자, 을은 장자이다.
- ㄱ. 맹자는 인격 완성을 위해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 ㄴ. 맹자는 의로운 일을 매일 쌓아[集義] 도덕적기개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 ㄷ. 장자는 기에 도가 모여들 수 있으므로 기로써 들으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 ㄸ. 장자는 물아일체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12. 갑은 칸트이다.

- ③ 칸트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행위만이 선하며, 다수의 이익이나 효율성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칸트는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도덕 법칙을 절대적이고보편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칸트는 선의지를 언제나 선한 것으로 보았다.
- ⑤ 칸트는 의무를 따를 때행복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13. 갑은 갈통, 을은 칸트이다.

- ② 갈통에 의하면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 ① 갈통은 의도적 폭력과 비의도적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영구 평화의 실현을위해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평화 연맹이 결성되더라도 개별국가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모든 전쟁의 종지와 평화 연맹의 확산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고 보았다. 갈통은 전쟁의 종지뿐 아니라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14.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ㄷ. 왕수인, 주희 모두 도덕법칙을 밝히고 그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왕수인, 주희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헛된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ㄱ. 왕수인은 지행합일을, 주희는 지행병진을 주장하였다.
ㄴ. 왕수인은 이치에 대한 궁구함 없이 양지를 발휘하는 [치양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주희는 이치를 탐구해야 앎을 극진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15. 갑은 스토아학과 사상가 에픽테토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④ 스피노자는 이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삶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① 스토아 사상은 공적인 삶과 의무를 존중하였다.
- ② 스토아 사상에서는 모든 정념의 제거가 아니라 정념에 대해 초연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③ 스피노자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보았다.
- ⑤ 스토아 사상에서는 자연의 질서인 필연성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16.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ㄱ.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닫는 중도의 수행으로 여덟 가지 바른 길을 제시하였다.
ㄷ.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ㄴ. 석가모니는 현세와 내세가 모두 업[자신의 행동, 생각,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ㄹ. 해탈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7. 갑은 마르크스, 을은 모어이다.
④ 모어가 주장한 '유토피아'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있지만 사치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보았다.
①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 노동은 생계의 수단이며 자아실현을 위한 창조적 행위라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 자본주의적(기술적) 분업이 폐지됨으로써 노동 소외가 극복된다고 보았다.
③ 모어는 유토피아에는 사적 소유가 없다고 보았다.
⑤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 국가가 소멸한다고 보았다.

18.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④ 이이에 의하면, 정의 근원[연원]은 모두 기질지성으로 같으며, 일반감정인 칠정도덕 감정인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① 도덕적으로 선한 본연지성[인의예지]이 변화될 수는 없다.
② 이황은 기가 발할 때 이는 기에 올라타서 기를 주재한다고 보았다.
③ 이와 기는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없다.
⑤ 인(仁)은 발하기 이전의 성(性)이다. 또한 이황은 측은지심을 이가 발한 것으로 보았다.

19. 갑은 홉스, 을은 루소, 병은 로크이다.
② 루소는 계약 당사자인 시민이 입법권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지만, 홉스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절대 권력체가 입법권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①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홉스, 루소, 로크 모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지닌다고 보았다.
③ 루소는 법은 일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과 같다고 보았다.
④ 로크는 사회 계약의 목적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있다고 보았다.

⑤ 홉스는 국가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없다고 보았다.

20. 갑은 페리클레스, 을은 슌페터이다.

③ 슌페터는 민주주의를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획득하려고 경쟁하는 정치적 장치라고 보았다.

① 페리클레스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시민들 중에 성인 남성들만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④ 슌페터는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슌페터는 시민이 비합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